

산욕초기 어머니 됨과 돌봄 자신감

방미란, 이정희, 이지애, 정지윤, 박세영, 안옥심*

박숙희** · 김영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출산과 동시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나 오랜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로도 변하지 않을 것은 바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 즉 임신을 통한 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주기에 있어서 이러한 임신과 출산 기간은 여성이 결혼하여 어머니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여성 자신에게는 발달과 성숙의 기회이자 태아에게는 선천적 환경으로 출생 후 아기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간이다.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여성은 이미 어머니 됨과 동시에 태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머니-태아 관계는 발달하게 된다. 어머니가 되는 현상 즉,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감정·이성·의지·육체 등의 특성을 어머니 됨(motherhood)이라고 할 때 어머니 됨을 대표하는 개념중의 하나가 바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maternal identity)이다. 정체성이란 Erickson(1968)

에 따르면 개인이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지하며 동일시와 사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 통합과정으로, 특히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 자신의 정체성 탐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였다(김혜원, 홍경자, 1996;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1986).

어머니 역할과 정체성 형성과의 관계를 보면 Rubin(1967a, b)은 어머니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킴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여 어머니 역할획득과 어머니 정체성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였고, Walker 등(1986a)은 어머니 역할획득을 어머니 정체성이라는 주관적 관점과 어머니 역할수행이라는 행동적 관점의 자신감으로 조작화하였으며, Mercer(1981)는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자신 그리고 영아에 대한 관심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인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이에 적절한 행동을 통합시켜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을 자신감있게 하는 과정으로 보아 어머니 역할획득의 지표를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았다(김영희, 1999; 이자형, 1996; Fowles, 1998). 따라서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내부로부터 지각하고 양육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어머니 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녀 양육을 통해 어머니로서 성숙되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

** 경주 동국대학병원 산부인과 수간호사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고 영아 또한 적절한 자극을 통해 성숙발달하게 된다.

양육행동에 대해 Winch(1979)는 양육이란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할당된 표현적 역할로서 좁은 의미의 양육(nurturance)은 우유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 아동을 매일 매일 돌보는 것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말, 행동,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정서적 만족의 심리적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양육의 기본목표는 아동의 신체적 생존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립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 최대한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행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는 연령, 어머니의 상태, 양육 자신감, 출산경험에 대한 인식, 심리적 상태와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역할대립과 역할긴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김미예 외, 1999; 이수연, 1998; Fowles, 1998).

이상에서 볼 때 어머니 됨이란 스스로를 어머니로서 자각하는 주관적 관점인 정체성과 어머니 역할로서 아기를 돌보는 기술을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행동적 관점인 양육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어머니 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출산 후 여성은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 변화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상 질식 분만인 경우 병원에서 보통 3일째에 퇴원을 하게 되고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도 6-7일 제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초산모의 경우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상태에 있는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머니가 퇴원 후 4주 동안 신생아 양육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며 특히 초산모의 경우 아기 돌봄에 대해 당황함과 긴장을 느낀다고 한 이해경(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으며, 경산모의 경우도 이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경험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신체, 심리적 회복 정도에 따라 어머니 역할학습이 지연되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니 됨과 아기 돌봄에 대한 간호중재가 필요한 대상은 초산모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는 경산모의 경우도 해당되며 이제까지의 연구는 거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자신과 아기 돌봄에 대한 교육적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인 산욕초기에 있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머니 됨과 아기 돌봄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출산직후부터 퇴원 전까지 관리를 받는 기간동안 간호사는 어머니 역할획득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간호중재를 실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인으로, 경험 중심의 학습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들어보았거나 실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처음인 학습자간에는 학습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였으므로(남철현, 1998; 박노예, 1993), 이 시기에 초산모만을 주요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을 시행하기보다는 산모 모두를 대상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 정도에 따른 대상자 요구에 기초하는 중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어머니 됨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와 신생아 관계에 있어서 모-아 애착 및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미래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로의 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됨의 주요개념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알아보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알아본다.
- 2)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확인한다.
-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1) 산욕초기

산욕기는 생식기가 임신 전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산후 6-8주이며, 보통 3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산욕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출산 후 첫 24시간 동안을 산욕직후, 첫 1주일을 산욕초기, 그리고 2-8주간 동안을 산욕후기라고 하며, 산욕직후와 산욕초기에 가장 극적이고 잠재적인 위험변화가 나타나고 이 시기 동안의

신생아와의 접촉기회 제공과 같은 간호중재 또한 어머니 됨과 아기 돌봄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다(이경혜 외, 1997).

2) 어머니 됨(motherhood)

어머니 됨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감정·이성·의지·육체 등의 특성 또는 어머니로서의 특성이나 질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 가는 모든 개념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란 어머니 됨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어머니·영아간의 관계체제에서 어머니로서의 인지와 정서를 뜻하고 이는 어머니 자신의 자아체제 안으로 임신경험을 결합시켜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순화시키고, 희망한 특성이나 바램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효정, 1996;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1986; Walker, Montgomery, 1994; Webster, 198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됨에 있어서의 중심 개념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Osgood 등(1957)에 의하여 개발된 형용사 어의구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이용하여 Walker(1977)가 발전시키고 고효정(1996)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서 아기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성 도구(SD Self : Myself as Mother)로 측정한 평가 점수를 말한다.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성 도구는 모두 11항목으로 되어 있어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긍정적인을 의미한다.

3) 신생아 돌봄 자신감

신생아 돌봄 자신감이란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 주기 위한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을 제공하는 양육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대한 개인적인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을 뜻한다(Bandura, 1977; Golas & Parks, 1986).

본 연구에서는 양육적인 역할 중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돌보기 활동인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득점점수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어머니 됨(motherhood)

출산 후의 시기 즉, 산욕기는 일반적으로 부부에게 있어서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시기이다. 그러나 또한 많은 일을 시작할 때이고 그들에게 있어 상당한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는 진통과 분만의 힘든 노력 후에 많은 심리적, 생리적으로 재 적응해야 될 일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 됨(motherhood)이다(Miller, 1997).

어머니 됨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성질 또는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성질로 여성이 태어나면서 지니는 어머니로서의 천분(天分)을 충칭하며, 어머니는 인간의 초기 삶인 신생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 부부에서 부모로의 이행은 복잡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행동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한다(신콘사이스 국어사전, 1986; Fowles, 1998).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영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욕시키는 기술과 같은 능력 뿐 아니라 관심, 사랑, 부드러움 그리고 영아의 신호에 민감함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어머니 됨은 성장기를 통해 학습하게 되고 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와 학습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Rubin의 초기 연구(1967a, b)와 Mercer(1981, 1985)에 따르면 "어머니가 역할에서의 능력을 성취하고 성립된 역할 내에 어머니 역할행동을 통합함으로써 어머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편안해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어머니는 자아체제로 중재되는 어머니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킴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여 어머니의 정체성과 어머니 역할획득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Walker 등(1986a)은 어머니의 정체성과 어머니 역할획득을 구분하여 어머니의 정체성을 어머니 역할획득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아 어머니와 영아 관계의 인지적이고 애정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어머니 역할수행을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아 어머니 정체성이라는 주관적 관점과 어머니 역할수행이라는 행동적 관점의 자신감으로 조작화하여 정의를 내렸다. 또한 Walker 등(1986b)은 어머니 역할수행을 다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을 어머니의 정체성, 주관적으로 지각된 어머니

역할수행,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적 어머니 역할수행으로 보았다(김영희, 1999).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이 그녀 자신은 물론 다른 것에 대해 재 정의하는 과정으로 어머니 역할 획득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모방(mimicry), 역할극(role play), 환상(fantasy), 투입-투사-거부(introjection-projection-rejection)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정체성(identity) 형성을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은 I(mother) and you(infant)의 개념 안에 있고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임신동안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영아의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로의 방법으로 구성되며 산욕기 동안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영아에 대한 또는 숙달된 어머니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3자 모델에서 영아와 관련된 자신에게로 초점의 변화"를 수반한다. 어머니는 영아에 대해 알게 되고 분만 후 그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향상되고 강화된다. 정체성 형성은 보통 임신을 계획하기 시작해서 임신 후 장차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면서 발전하여 산욕기 말경에 확고해지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진되며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개인적이고 분명한 관계이며 정체성은 특유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각 영아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조선영, 고효정, 1999; Fowles, 1999; Rubin, 1967a, 1984; Walker et al., 1986b).

정체성과 관련하여 Sheehan(1981)은 어머니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갈등이 크면 정체성의 혼돈이 증가되어 어머니 역할획득이 지연되고 영아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Waker와 Montgomery(1994)도 분만 후 산모가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수준, 임신 희망여부, 임신기간, 결혼기간, 취업유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정도, 어머니 역할 관련 지식 등이 포함되므로(김혜원 등, 1996; 조선영, 고효정, 1999) 대상자와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돕는 요인들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상호호혜적인 상황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생아 돌봄 자신감

출산을 통한 아기의 탄생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부부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기존의 부부역할과 더불어 한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되는 것은 적응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경험이고 개인 성장을 위한 도구라고 하였다(김미예 외, 1999).

현대 사회는 부모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낮에는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통해서만 자녀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등 돌보는 역할을 통해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에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양육이란 어린이를 길러 자라게 함 또는 부양하여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행동이란 양육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산모가 신생아를 돌보는 행위 즉 수유, 안아주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등의 과업 중심적 활동인 기계적 측면과 달래기, 행동 파악하기 등의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이러한 양육행동은 산모가 신생아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돌봄이라는 의미는 어머니로서 아기에게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육의 개념이다.(신콘사이스 국어사전, 1986; 이자형, 1996).

인간에게 있어서 초기 경험은 그들의 신체, 지능, 성격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분만 후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의 초기 접촉에 의한 돌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산욕초기는 어머니가 신생아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확인되어져 왔다. 따라서 산욕초기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행동과 그러한 돌봄에 반응하는 영아의 행동 및 양자간의 행동반응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자극에 대해 영아가 상태반응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즉, 생물적, 무생물적 혹은 사회적 자극과 더불어 체온조절, 소화기능, 심장기능의 안전상태 등 자율적인 계통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의식상태의 안전한 조직과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어머니의 돌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하영수, 1987; Klaus & Kennell, 1976).

또한 돌봄에 있어서 자신감이란 어머니로의 적응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어머니가 되는 적응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며 어머니가 된 첫 주 동안 산모의 '느끼기 힘든 어머니 행동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관적 유사성'으로서 정의된다(Ruchala & James, 1997).

신생아 돌봄 자신감이란, 신생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을 뜻하며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기대하는 특별한 결과를 얻기 위한 확실한 행동의 신념과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조결자 외, 1999; Drummond, 1997).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산모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며,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될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정은순, 한명은, 1999).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 즉 아기의 기질,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 배우자 지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 적응은 사회적지지, 역할기대,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그리고 출생 전 준비를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uchala, James, 1997).

산욕기 동안 어머니 역할획득과 어머니 역할 수행에 관한 Walker 등(1986b)의 연구를 보면 초산모에 있어서의 수유행동과 관련된 자신감은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만큼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초산모를 위한 육아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자형(1998)의 연구를 보면 초산모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생아 돌봄의 경험이 없는 초산모와 경산모를 비교해 볼 때 Ruchala 등(1997)은 신생아 돌봄과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실제적 또는 인지적 능력과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 초산모의 자신감을 방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출산 후 양육자로서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산욕기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를 배우게 되므로 간호사는 어머니가 신생아 돌봄 기술을 습득하고 어머니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구현영, 문영임, 1998).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 및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9년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후 2-3일 된 건강한 산모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측정도구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Osgood 등(1957)에 의하여 개발된 형용사 어의구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해 어머니로서의 자기(SD Self: My-self as Mother: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적인 영역을 Walker(1977)가 발전시킨 도구로서 고효정(1996)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도구는 대상자가 응답시에 각 개념에 대한 편견이나 맹목적인 답을 우려하여 질문지의 형용사 낱말들을 척도 양극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도구인 11문항은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재빠르다, 기쁨있다, 강하다, 다정하다, 좋다, 성공적이다, 차분하다, 기꺼이하다, 신중하다, 완벽하다, 성숙하다)과 부정적 정체성(느리다, 기쁨없다, 약하다, 매정하다, 나쁘다, 실패다, 흥분을 잘한다, 마지못해 한다, 신중하지 않다, 부족하다, 미숙하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의 점수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이며, 부정적인 항목은 역환산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득점의 합이 높은 경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로 고효정(1996), 김혜원 등(1998)은 0.81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77로 나타났다.

2) 신생아 돌봄 자신감 측정도구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Pharis Self-Confidence Scale)는 영아올음 의미파악(1), 목욕시키기(2), 수유(3), 기저귀 갈아주기(4), 옷 갈아입히기(5), 배꼽 돌보기(6), 포경 수술부위 돌보기(7), 안아주기(8), 영아상태설명하기(9), 체온측정하기(10), 손·발톱 안전하게 깎아주기(11), 눈·코·귀 깨끗이 해주기(12), 좋은 엄마 되어주기(13) 등 일상적인 신생아 돌봄 활동과 관련된 13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이다(Pharis, 1978).

평점방법으로는 각 항목에 있어서 매우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5점,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3점, 별로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2점, 전혀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계산하였다. 이 도구의 점수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신생아 돌봄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를 백미례(1990)는 0.82, 김혜원 등(1998)은 0.96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1) 초산모와 경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 3) 각 요인의 집단간 평균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64명의 어머니 중 초산모는 27명(42.2%)이었고 경산모는 37명(57.8%)이었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3세에서 38세이며, 평균 연령은 초산모 28세, 경산모 30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 초산모 13명(48.1%), 경산모 25명(67.6%)으로 경산모가 더 많았고 전문대졸이상인 경우는 초산모가 14명(51.9%)으로 경산모 12명(33.3%)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가 있는 경우가 초산모 13명(48.1%), 경산모가 26명(70.3%)으로 경산모가 더 많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도 초산모 14명(51.9%), 경산모 11명(29.7%)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초산모 20명(74.1%), 경산모 28명(75.7%)이 직업이 없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초산모 7명(25.9%), 경산모 9명(24.3%)였다. 월 총수입 평균은 초산모가 139만원, 경산모가 175만원 정도였다. 평균 결혼기간은 초산모 28개월, 경산모 63개월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초산모 77.8%, 경산모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출생순위에서 초산모가 장녀인 경우 10명(37%), 경산모가 차녀이하인 경우가 22명(59.5%)로 가장 많았다(표 1).

2)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임신주수는 30주에서 42주까지로 초산모 38.9주, 경산모 38.7주로 비슷하였으며, 분만형태는 초산모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이 20명(74.1%)으로 7명(26.9%)의 정상질분만에 비해 약 3배 가량 더 많았으나 경산모의 경우는 제왕절개분만 18명(48.6%), 정상질분만 19명(51.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기의 성별에 대해서는 초산모인 경우 남아가 17명(63%), 여아가 10명(37%), 경산모인 경우 남아가 23명(62.2%), 여아가 14명(37.8%)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아기의 평균체중은 초산모의 아기인 경우 3.30kg이었고 경산모의 아기인 경우 3.22kg이었으며, 수유방법은 모유인 경우가 초산모 16명(59.3%), 경산모 15명(4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혼합유를 먹이는 경우로 초산모 9명(33.3%), 경산모 13명(35.1%)였고, 우유를 먹이는 경우는 초산모 2명(7.4%), 경산모 9명(24.3%)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특 성 | 구 분 | 초 산 모 (27명) | | 경 산 모 (37명) | | 전 체 (64명) | |
|--------------|-----------|-------------|--------------|-------------|--------------|-----------|--------------|
|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연 령 | 25세 이하 | 2(7.4) | 28.04±2.89 | 0(0.0) | 30.11±2.75 | 2(3.1) | 29.23±2.97 |
| | 26 - 30세 | 22(81.5) | | 23(62.2) | | 45(70.3) | |
| | 31세 이상 | 3(11.1) | | 14(37.8) | | 17(26.6) | |
| 교육수준 | 고졸 | 13(48.1) | | 25(67.6) | | 38(59.4) | |
| | 전문대 이상졸 | 14(51.9) | | 12(32.4) | | 26(40.6) | |
| 종 교 | 기독교/천주교 | 3(11.1) | | 7(18.9) | | 10(15.6) | |
| | 불교 | 10(37.0) | | 19(51.4) | | 29(45.3) | |
| | 없슴 | 14(51.9) | | 11(29.7) | | 25(39.1) | |
| 직 업 | 유 무 | 7(25.9) | | 9(24.3) | | 16(25.0) | |
| | | 20(74.1) | | 28(75.7) | | 48(75.0) | |
| 월 평균수입 | 100만원이하 | 10(37.0) | 138.52±43.74 | 14(37.8) | 174.86±82.45 | 24(37.5) | 159.53±70.72 |
| | 101-200만원 | 16(59.3) | | 15(40.5) | | 31(48.4) | |
| | 201-300만원 | 1(3.7) | | 5(13.5) | | 6(9.4) | |
| | 301만원이상 | 0(0.0) | | 3(8.1) | | 3(4.7) | |
| 결혼기간 | 11개월이하 | 4(14.8) | 27.56±21.23 | 0(0.0) | 62.70±33.61 | 4(6.3) | 47.87±33.73 |
| | 12-23개월 | 10(37.0) | | 1(6.4) | | 11(17.2) | |
| | 24-35개월 | 8(29.6) | | 8(21.6) | | 16(25.0) | |
| | 36-47개월 | 2(7.4) | | 8(21.6) | | 10(15.6) | |
| | 48개월이상 | 3(11.1) | | 20(54.1) | | 23(35.9) | |
| 가족형태 | 핵가족 | 21(77.8) | | 29(78.4) | | 50(78.2) | |
| | 대가족 | 6(22.8) | | 8(21.6) | | 14(21.8) | |
| 어머니의 출생순위 | 장녀 | 10(37.0) | | 7(18.9) | | 17(26.6) | |
| | 차녀이하 | 8(29.6) | | 22(59.5) | | 30(46.9) | |
| | 막내 | 9(33.3) | | 7(18.9) | | 16(25.0) | |
| | 외동 | 0(0.0) | | 1(2.7) | | 1(1.6) | |

〈표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 특 성 | 구 분 | 초 산 모(27명) | | 경 산 모(37명) | | 전 체(64명) | |
|-----------|-----------|------------|------------|------------|------------|----------|------------|
|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임신주수 | 36주 이하 | 2(7.4) | 38.85±1.75 | 7(18.9) | 38.51±2.14 | 9(14.1) | 38.66±1.98 |
| | 37-40주 | 18(66.7) | | 27(73.0) | | 45(70.3) | |
| | 41주 이상 | 7(25.9) | | 3(8.1) | | 10(15.6) | |
| 분만형태 | 정상질분만 | 7(25.9) | | 19(51.4) | | 26(40.6) | |
| | 제왕절개분만 | 20(74.1) | | 18(48.6) | | 38(59.4) | |
| 아기성별 | 남 | 17(63.0) | | 23(62.2) | | 40(62.5) | |
| | 여 | 10(37.0) | | 14(37.8) | | 24(37.5) | |
| 출생시 체중 | 3kg 이하 | 6(22.2) | 3.30±0.44 | 10(27.0) | 3.22±0.53 | 16(25.0) | 3.25±0.49 |
| | 3.01-3.50 | 13(48.1) | | 15(40.5) | | 28(43.8) | |
| | 3.51-4.00 | 7(25.9) | | 11(29.7) | | 18(28.1) | |
| | 4.01 이상 | 1(3.7) | | 1(2.7) | | 2(3.1) | |
| 수유방법 | 모유 | 16(59.3) | | 15(40.5) | | 31(48.4) | |
| | 우유 | 2(7.4) | | 9(24.3) | | 11(17.2) | |
| | 혼합유 | 9(33.3) | | 13(35.1) | | 22(34.4) | |

〈표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점수 분포

| 점수범위 | 구 분 | 초 산 모(27명) | | 경 산 모(37명) | | 전 체(64명) | |
|--------|-----|------------|------------|------------|------------|----------|------------|
|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50점 이하 | | 10(37.0) | 55.41±7.84 | 12(32.4) | 53.81±7.05 | 22(34.4) | 54.48±7.38 |
| 51-60점 | | 10(37.0) | | 19(51.4) | | 29(45.3) | |
| 61-70점 | | 5(18.5) | | 6(16.2) | | 11(17.2) | |
| 71점 이상 | | 2(7.4) | | 0(0.0) | | 2(3.1) | |

2.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총 11문항인 어머니 정체성 측정도구는 긍정적 정체성 측정 문항과 부정적 정체성 측정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한 결과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까지의 점수범위 내에서 초산모 평균 55.41점, 표준편차 7.84, 경산모 평균 53.81점, 표준편차 7.05를 보여 초산모의 정체성 측정점수가 경산모의 정체성 측정점수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전체 평균점수는 54.48점, 표준편차 7.38을 기록하였다. 이것으로 초산

모의 경우가 경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측정도구의 7점 척도 문항을 분석해 보면 '어머니로서 기꺼이 한다'에서는 초산모(5.89점)와 경산모(5.78점)으로 둘 다 아주 기꺼이 함을 나타내는 쪽인 5.8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어머니로서 품위있다'에서는 초산모(4.33점)와 경산모(4.43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쪽인 4.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4).

〈표 4〉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측정문항분석

| 문 항 | 구 분 | 초 산 모(27명) | | 경 산 모(37명) | | 전 체(64명) | |
|--------------------|-----|-------------|---------|-------------|---------|-------------|--|
| |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 |
| 어머니로서 나는 | | | | | | | |
| 1. 재빠르다 - 느리다 | | 4.41 ± 1.22 | | 4.86 ± 1.18 | | 4.67 ± 1.21 | |
| 2. 품위있다 - 품위없다 | | 4.33 ± 0.88 | | 4.43 ± 0.99 | | 4.39 ± 0.94 | |
| 3. 약하다 - 강하다 | | 4.81 ± 1.14 | | 4.43 ± 1.37 | | 4.59 ± 1.28 | |
| 4. 다정하다 - 매정하다 | | 5.33 ± 1.39 | | 4.86 ± 1.32 | | 5.06 ± 1.36 | |
| 5. 좋다 - 나쁘다 | | 5.33 ± 1.39 | | 5.14 ± 1.27 | | 5.22 ± 1.17 | |
| 6. 실패다 - 성공적이다 | | 5.30 ± 1.23 | | 4.97 ± 1.14 | | 5.11 ± 1.18 | |
| 7. 불안정되다 - 안정되다 | | 5.19 ± 1.11 | | 5.32 ± 1.33 | | 5.27 ± 1.24 | |
| 8. 기꺼이하다* - 마지못해하다 | | 5.89 ± 1.19 | | 5.78 ± 1.16 | | 5.83 ± 1.16 | |
| 9. 신중하지않다 - 신중하다 | | 5.81 ± 1.04 | | 4.81 ± 1.68 | | 5.23 ± 1.52 | |
| 10. 완벽하다* - 부족하다 | | 4.44 ± 1.01 | | 4.59 ± 1.07 | | 4.53 ± 1.04 | |
| 11. 성숙하다* - 미숙하다 | | 4.56 ± 1.19 | | 4.59 ± 1.07 | | 4.58 ± 1.15 | |

* 역환산

〈표 5〉 돌봄 자신감점수 분포

| 점수범위 | 구 분 | 초 산 모(27명) | | 경 산 모(37명) | | 전 체(64명) | |
|--------|-----|------------|-----------|------------|------------|----------|------------|
|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30점 이하 | | 0(0.0) | 44.0±7.78 | 2(5.4) | 46.81±9.90 | 2(3.1) | 45.63±9.10 |
| 31-40점 | | 11(40.7) | | 4(10.8) | | 15(23.4) | |
| 41-50점 | | 11(40.7) | | 19(51.4) | | 30(46.9) | |
| 51-60점 | | 4(14.8) | | 9(24.3) | | 13(20.3) | |
| 61점 이상 | | 1(3.7) | | 3(8.1) | | 4(6.3) | |

〈표 6〉 돌봄 자신감 측정문항분석

| 문항 | 구분 | 초산모(27명) | 경산모(37명) | 전체(64명)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1. 아기가 우는 이유 알아내기 | | 2.93 ± 0.78 | 3.41 ± 0.80 | 3.20 ± 0.82 |
| 2. 혼자서 아기 목욕시키기 | | 2.78 ± 0.85 | 3.16 ± 1.07 | 3.00 ± 0.99 |
| 3. 아기에게 젓 먹이기 | | 3.48 ± 0.75 | 3.41 ± 1.17 | 3.44 ± 1.01 |
| 4. 능숙하게 기저귀 갈아주기 | | 3.59 ± 0.97 | 4.16 ± 1.12 | 3.92 ± 1.09 |
| 5. 아기의 옷을 갈아 입히기 | | 3.74 ± 0.86 | 4.19 ± 1.17 | 4.00 ± 1.07 |
| 6. 아기의 배꼽 돌보기 | | 2.85 ± 0.95 | 3.41 ± 1.17 | 3.17 ± 1.11 |
| 7. 포경수술부위 돌보기 | | 2.67 ± 0.92 | 3.05 ± 1.10 | 2.89 ± 1.04 |
| 8. 아기를 편안하게 안아주기 | | 3.48 ± 0.85 | 3.70 ± 0.97 | 3.61 ± 0.92 |
| 9. 아기상태를 의료진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 | 3.70 ± 0.95 | 3.35 ± 0.89 | 3.50 ± 0.93 |
| 10. 아기의 체온재기 | | 3.70 ± 0.78 | 3.57 ± 1.04 | 3.63 ± 0.93 |
| 11. 아기의 손톱 깎아주기 | | 3.48 ± 1.01 | 3.89 ± 1.02 | 3.72 ± 1.03 |
| 12. 아기의 눈, 코, 귀 청결히 닦아주기 | | 3.67 ± 0.78 | 3.76 ± 0.95 | 3.72 ± 0.88 |
| 13. 아기에게 좋은 엄마되어주기 | | 3.93 ± 0.68 | 3.76 ± 1.01 | 3.83 ± 0.88 |

3. 신생아 돌봄 자신감

일상적인 신생아 돌봄 활동과 관련된 13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돌봄 자신감을 측정한 결과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까지의 점수범위 내에서 전체 돌봄 자신감 점수는 45.63점, 표준편차 9.10이었고, 초산모 평균 44.0점, 표준편차 7.78, 경산모 평균 46.81점, 표준편차 9.90으로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돌봄에 있어서 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5점 척도인 신생아 돌봄 자신감 측정도구의 문항을 분석해 보면 전체평균 4.00점으로 '아기옷 갈아입히기'가 초산모(3.74점)과 경산모(4.19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나 초산모와 경산모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초산모의 경우 '좋은 엄마 되어주기'가 3.93점으로 '아기옷 갈아입히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초산모가 어머니 정체성 측정 점수에서 경산모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포경수술부위 돌보기'는 초산모(2.67점)과 경산모(3.05점)으로 나타나 전체평균 2.89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6).

4.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과의 관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은 정적인 상관관계 ($r=0.29, P=0.03$)를 나타냈다(표 7).

〈표 7〉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과의 상관관계

| | 어머니 정체성 |
|--------|----------------------|
| 돌봄 자신감 | 0.29 ($P=0.03$) |

V. 논 의

1.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여성이 실제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출산을 통해 아기를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 단순히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라 임신시부터 아기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과 연관 지어 출산 후에도 아기를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갈등하면서 어머니로 적응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어머니 됨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 심리적 과정을 통해 본능이 아닌 돌보는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이자형, 1998).

분만 직후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 산모는 자신의 신체,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모아동실이 아니면 정상 질분만인 경우 짧게 몇 시간에서 제왕절개분만인 경우 길게 2-3일 동안 신생아를 직접 보지도 못하므로 어머니 됨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 산모의 어머니 정체성은 11점에서 77점까지의 범위 중 54.48점을 나타내 중간 이상의 범위에 속하므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산모(55.41점)의 경우 경산모(53.81점)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실제로 돌봄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산모인 경우 이전의 돌보기 활동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어머니 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산욕초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측

정한 이은숙(1992)의 54.36점과 김혜원 등(1998)의 52.6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정체성 측정문항을 분석해 보면 초산모인 경우 어머니로서 기꺼이, 신중하고, 다정하게, 성공적이며, 안정적이라고 보통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완벽함, 성숙됨, 품위 있음, 강함, 재빠름 등에서는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산모의 경우는 어머니로서 기꺼이, 안정되게, 좋으며 성공적이고 재빠르며 신중하다고 보통이상으로 느끼는 반면 완벽함, 성숙됨, 강하고 품위 있음은 보통이하로 지각하고 있었다. 완벽과 성숙됨 그리고 강함은 시간적으로 많은 경험 후에 습득될 수 있는 문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

Walker와 Montgomery(1994)은 분만 후 산모가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의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McMahan(1999)도 어머니 정체성을 행동적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로 설명하여 행동적인 요소는 신생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 능력의 주관적인 평가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인 요소는 자존감의 통합, 아기에 대한 애착정도 그리고 출생 후의 부정적인 감정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확인이후 분만 후 3-10개월에 걸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획득되므로 산전관리시부터 외래에서 기다리는 동안을 이용해 행동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임신 관련 비디오 상영 등의 간호중재를 통해 산모 자신의 정체성형성을 도와주어야 한다.

2. 신생아 돌봄 자신감

Mercer(1981)는 어머니 정체성 형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의 어머니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 획득의 가능성, 기술의 축적 그리고 자아상 형성의 복잡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산욕초기 어머니의 돌봄 활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어머니로서의 자아 개념이 높아질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만족감도 느끼게 된다는 보고에 비추어 어머니로서의 돌봄 활동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어머니 역할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교육과 지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김영희, 1999; 백미레, 1990; 이영은, 1992; 이자형, 1998; 정계하, 1993).

본 연구결과 대상 산모의 신생아 돌봄 자신감 점수는 13점에서 65점의 범위 내에서 45.63점을 나타내 보통 이상의 자신감을 보였으며 초산모는 44.0점 그리고 경산모는 46.81점으로 경산모가 돌봄에 있어서는 더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산모는 경산모에 비해 자신감이 낮으며 산욕초기의 산모는 산욕후기의 산모에 비해 자신감이 낮은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높다고 한 정은순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자신감 도구를 이용해 산후 3일 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측정된 Walker 등(1986a)은 48.52점, 이은숙(1987)은 49.81점, 산후 5-6일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경(1990)은 42.95점, 김혜원 등(1998)은 45.50점, 조결자 등(1999)은 59.10점, 그리고 분만 후 4-6주에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측정된 백미레(1990)는 42.48점으로 보고하였다.

신생아 돌봄 자신감 측정 문항분석 결과 초산모인 경우 가장 자신있는 문항은 '좋은 엄마 되어주기', '아기웃 같이입히기', '아기상태 설명하기', '체온재기'였으며, 경산모인 경우는 '아기웃 같이입히기', '기저귀 갈기', '손톱깎기', '칭걸히 닦아주기'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자신없는 문항은 초산모인 경우 '포경수술부위 돌보기', '목욕시키기', '배꼽 돌보기'였고 경산모인 경우도 '포경수술부위 돌보기', '목욕시키기', '아기상태 설명하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후 1일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영아 돌보기에 대한 걱정을 조사한 Bull(1981)의 연구결과 질병증상,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제대관리 등의 신체간호와 옷 입히기 순으로 나타난 것과 Barnett 등(1970)의 연구결과 수유, 아기 행동,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영아 돌보기 활동에 관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및 돌보기 활동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는 결과(김혜원 외, 1998)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초산모의 경우 일상적인 신체적 돌봄보다는 주관적인 좋은 어머니 됨에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인 점으로 이 결과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관련되며, 산욕초기 초산모는 대부분 영아를 처음에 안는 것조차도 무섭고, 영아가 울 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고,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짐이나 단순한 양육행동에 관한 자신감은 높으나, 영아 행동 이해나 실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 등에 관한 자신감은 낮았다는 정은순 등(199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산욕초기는 신생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어머니가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생아 돌보기 활동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기술과 이해이며 돌보기 활동을 포함한 어머니 역할획득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으로 이자형(1981)의 산모의 신생아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도 분만 후 첫 접촉시 돌보는 활동을 한 산모는 8.7%로 극히 적었고 22.7%의 산모가 아기를 안고만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산모들은 퇴원 후 4주 동안 신생아 양육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되어 양육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가 높으며 특히 신생아 돌봄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은 아기의 양육경험이 없는 분만 직후보다는 아기를 기르면서 학습되어 지식과 기술이 확장되지만 어머니가 교육을 받게 되면 더 확장되어 자신감이 증가하였다는 조결자 등(1999)의 결과와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초산모가 교육을 받지 않은 초산모보다 자신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서영미(1998)의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분만 후 산모가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학습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분만 후 4-6주 경에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다(이은숙, 1988; 이혜경, 1992). 따라서 출산 전후시기에 이루어지는 의료진 특히 임산부와 가장 많은 접촉의 기회를 갖는 간호사에 의한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신생아 돌봄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재의 내용과 정도는 산모의 어머니 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어머니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어머니로서 느끼고 행동하는 산욕초기는 장차 어머니 역할로의 발돋움을 내딛게 되는 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 시기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과 지지가 제공되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 어머니-영아 애착행위 혹은 어머니-영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혜원 외, 1998; 백승남 외, 1996).

본 연구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돌봄 자신감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0.29$, $P=0.03$)를 보였으며, 김혜원 등(1998)의 산욕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정도($r=0.3761$, $P=0.0001$)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초산모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높으면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경산모의 경우 신생아 돌봄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관련 간호중재를 실시할 때 간호사는 초산모에게는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경산모인 경우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전 산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산욕초기 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주시내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6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11점에서 77점까지의 점수에서 초산모의 경우 55.41점, 경산모의 경우 53.81점으로 전체평균 54.48점을 기록하였다. 정체성 측정문항 중 초산모와 경산모 둘 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어머니로서 기꺼이 한다'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어머니로서 품위 있다'로 나타났다.
- 2) 신생아 돌봄 자신감은 13점에서 65점까지의 점수에서 초산모의 경우 44.0점, 경산모의 경우 46.81점으로 전체평균 45.63점으로 나타났다. 초산모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좋은 엄마 되어주기', 경산모의 경우 '아기웃 잡아입히기'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초산모와 경산모 둘 다 '포경수술부위 돌보기'로 나타났다.
-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과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r=0.29$, $P=0.03$)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연구대상 산모에 있어서 산욕초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게 나왔고, 신생아 돌봄 자신감은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산모의 높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신생아 돌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들을 강화시키며 돌봄 자신감을 지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하여 산욕초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상호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모아 관계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자면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을 증진시킬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되며, 간호중재프로그램 적용 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신생아 돌봄 자신감의 변화 관찰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효정 (1996).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일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현영, 문영임 (1998).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 대한간호학회지, 28(3), 920-929.

김미예 외 (1999). 아동간호학 총론. 서울: 수문사.

김영희 (1999).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혜원 (1998). 초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관한 모형구축. 대한간호학회지, 28(2), 511-518.

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산욕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과 영아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관한 연구. 여성간호학회지, 4(1).

김혜원·홍경자 (1996). 임부의 모성정체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6(3), 531-543.

남철현 (1998).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서울: 계축문화사.

박노예 (1993). 보건교육. 서울: 수문사.

백미례 (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영미 (1998).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이 초산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자신감, 행동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8(4), 1060-1073.

신큰사이스 국어사전(1986). 서울: 민중서관.

이경혜 외 10인 (1997). 여성건강간호학(상). 서울: 수문사.

이미경 (1990).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 (1998). 양육의 개념분석. 아동간호학회지, 4(1), 76-85.

이영은 (1992). 산욕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 달성방법 합의가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숙 (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의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2). 산욕기 초산모의 역할획득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2(1), 5-20.

이자형 (1996). 산욕 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2.

_____ (1998). 초산모를 위한 육아 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322-331.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계하 (1993). 신생아 돌보기의 교육 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순·한명은 (1999). 초산부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79-88.

조결자, 이근자, 이옥자 (1999).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5(1), 84-96.

조선영·고효정(1999). 분만유형에 따른 초산부의 분만 경험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5-17.

최연순 외 (1999). 여성건강간호학 I. 서울: 수문사.

- 하영수 (1987).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6(5), 43-68.
- 한경자 (1997). 영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228-240.
- Bandura, A. (1977).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arnett, C. R., Leiderman, P. H., Grobstein, R., Klaus, M. (1970). Neonatal separation: The maternal side of interactional deprivation. Pediatrics, 45(2), 197-204.
- Bull, M. J. (1981). Change in concerns of first time mothers after one week at home. JOGN Nursing, 9(10), 391-394.
- Drummond, J. (1997). Childbirth confidence: validating the childbirth self-efficacy inventory (CBSEI) in an Austral sample. Advanced Nursing, 26(3), 613-622.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Norton & Company INC.
- Fowles, E. R. (1998). Labor Concerns of Women Two Months After Delivery. Birth, 25(4), 235-240.
- _____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Health Care Women Int, 19(1), 83-94.
- _____ (1999). The 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and Maternal Identity. MCN, 24(6), 287-293.
- Golas, G. A. & Parks, P. (1986). Effect of Early Postpartum Teaching on Primiparas' Knowledge of Infant Behavior and Degree of Confidenc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9, 451-459.
- Klaus, M., Kennell, J. H. (1976). Maternal-Infant Bonding. St. Louis, CV Mosby, 65.
- McMahon, C. A. (1999). Does Assisted Reproduction Make an Impact on the Identity and Self-Esteem of Infertile Women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Assisted Reproduction and Genetics, 16(2), 59-62.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2), 73-77.
- _____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4.
- _____ (1986). First-Time Motherhood Experiences from Teens to Forti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iller, M. A. (1997). The Childbearing Family A Nursing Perspective. Little BROWN AND BOSTON, TORONTO.
- Osgood, C. E., Suj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Parenting Role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Press.
- Rubin, R. (1967a).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 Part I Process, Nursing Research, 16, 237-245.
- _____ (1967b).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 Part II Models and References, Nursing Research, 16, 342-346.
- _____ (1984).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s. New York: Springer Co.
- Ruchala, P. L., & James, D. C. (1997). Social Suppor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nd Maternal Confidence Among Adolescent and Adult Mother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6(6), 685-689.
- Walker, L. O. (1977). Investigating the semantic properties of two concepts.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from the author at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nursing, 1700 Red River St., Austin, TX 78701.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a).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2), 68-71.

_____ (1986b). Mothering Behavior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Research, 35(6), 352-355.

Walker, L. O., Montgomery, E. (1994). Maternal identity and role attainment: Long term relations to children's development. Nursing Research, 43(2), 105-110.

Webster 영영사전 (1983).

Winch, R. (1979). The Modern Family(3rd ed.). In Bigner, J. J.,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Abstract-

key concept : Immediate postpartum period,
Motherhood, Role Confidence

Motherhood and Role Confidence in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Bang, Mi Ran · Lee, Jung Hee · Lee, Jee Ae**
*Jung, Jee Yun · Park, Se Young, An, Ok Sim**
*Park, Sook Hee***
*Kim, Young Hee****

Being a mother is motherhood which means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has to meet

maternal identity and role confidence of caring infan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maternal identity as a motherhood and role confidence in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and then explain the correlations of them. Data were collected for 2 months by questionnaires from 64 mothers in the hospital. The scales were to measure motherhoo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11 items and role confidence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13 items.

The analysis of data was done with SPSSWIN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ean score of maternal identity of primipara was 55.41 and multipara was 53.81.
In this outcome primipara's score was higher than multipara's.
2. Mean score of role confidence of primipara was 44.0 and multipara was 46.81.
Multipara's score was higher than primipara's.
3.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identity and role confidence was $r=0.29(P=0.03)$.

This was a interesting result. Because many studies reported that primipara had a lower score of maternal identity and role confidence than multipara's. But this study showed that primipara's score of maternal identity was higher than multipara's. So nurse has to support primipara's identity as a mother, taking advantage of nursing intervention from prenatal to postnatal periods. Also nurse has to offer many opportunities to experience primiparas and multiparas how to care their infants.

* Senior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 Head Nurse of OBGY,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